

# 협회와 전시산업의 미래

## The future of KIRA and exhibition industry

이규환 / 정회원, 아카펠리 건축사사무소  
by Lee, Kyu-hwan, KIRA  
전시사업위원회 전문위원

feature

통상적으로 그 해의 전시회가 끝나면 정산 과정을 거친 후 바로 다음해의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다. 그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다음 전시회의 개최시기 결정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양한 전시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매우 첨예한 경쟁구도 속에서 상당한 신뢰와 힘의 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0년도 전시회는 장소 확보를 위한 전쟁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G20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행사가 2010년 11월 중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G20정상회담에는 당사국인 20개국의 국가원수는 물론 주변국을 포함하여 30~40명의 국가원수가 참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행원들의 인몰구성이나 수를 생각하면 가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지구촌 행사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기에 G20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정상회담 시기에 앞서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11월에 열리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앞서 1

달에서 2달 정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이 시기는 바로 우리가 지난 4년간 지속해 온 전시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전시시기를 옮겨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장소까지도 옮겨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5회 짝을 맞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시기와 장소를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엄청난 상황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우리 전시산업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제1회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시장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유사전시회가 너무 많으면 전시산업의 발전에 저해된다는 점과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유사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전시업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난관을 극복한 것은 바로 차별화였다.

기존 전시회는 건축자재 중심의 부분적인 전시회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건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진정한 건축전문전시회로서 국가적인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전시회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몇 가지 약속과 함께 첫 번째 전시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 MICE산업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협회와 전시사업위원들이 모두 힘과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우리들의 궁금증에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그 약속이란 첫째, 차별화를 이룰 것과 둘째,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지속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시회가 건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었다. 강제성은 없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전시회의 방향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요청이기도 했다.

실제 문제는 전시회를 주최하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가 아닌 산업이라는 낱말을 도입한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컸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글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다행히 낱말에 대한 반발은 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건축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허황된 착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들은 주변의 너무도 많은 분들이 "건축사는 문화전반의 일들을 총괄하는 지휘자로서 산업전시회 정도는 간단히 해 낼 수 있는 일이다." 또는 "문화인인 건축사는 매사에 봉사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이었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답변하던 말이 있다. "산업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전문분야이다. 또한 사업을 봉사로 할 것인가?"

전시산업의 최강국으로 분류되는 독일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전시업무에 전문적으로 투입되어 진행된다고 한다. 해당분야의 업무능력과 전시업무능력이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시회 최강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왔는가? 전시위원회는 해마다 급조되었고, 때때로 힘들면 쉽게 포기하자는 말들이 난무하면서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보물단지를 내팽개치듯 애물단지 취급해 온 부분도 없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건축사들이 참으로 기다림에 약하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가꾸어 크게 이루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득에 휩싸여 흔들어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결국 2010년도 전시장 배정 협의에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신의 말이 나왔다. 약속의 당사자는 중도하차했었고, 차별화는 커녕 간의 전시회가 외관상 성공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G20정상회담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남아있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최소한 2010년도

전시회에 한 해서 만큼은 시기와 장소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전시산업을 대표적으로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산업이라 통칭한다는 것을 지난 건축문화신문 2009년 10월호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 건축문화를 버리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진짜 작품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과 투시도 등의 설계 자료를 아무도 구매해 주지 않는 패널에 붙여서 전시하는 것이 상당한 건축문화라고 착각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대신 국제회의와 집회 및 교육 그리고 산업전시회와 관광 등도 우리들이 소중히 가꾸어 갈 건축문화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관광여행산업에 관여한다면 일반여행사와 비교하여 과연 부끄러울 것이 있을까? 건축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축과 관광여행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MICE산업은 우리 건축사들이 그리고 협회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의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에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MICE산업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이기 이전에 우리 건축인들이 우선적으로 개척해가야 할 우리의 업역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가꾸어 간다면 분명 우리들에게 황금알을 건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짧은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상황변화들이 전시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도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 남들이 목숨 걸고 임한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함부로 문화창조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실을 망각하지도 말자.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 MICE산업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협회와 전시사업위원들이 모두 힘과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우리들의 궁금증에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http://www.kaff.biz)